



최연의 산 이야기 <20> 황악산 3

백화산 능선 사이로 흐르는 송천이 반야사를 거쳐 금강으로 흘러든다.

# 물한계곡 물줄기 송천과 만나 금강으로 흐르는구나

황악산의 남쪽으로 김천·성주·선산 고을이 있다면, 북쪽으로는 황간·추풍령 고을이 있다. 황간(黃澗)은 본래 신라의 소라현이었다가 경덕왕 때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백두대간 상의 민주지산에서 발원한 물한계곡의 물이 삼봉산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합쳐져 장교천(長橋川)을 이루며, 황간을 지나 달도 머물고 간다는 월유봉(月留峰)에서 상주 땅 화령의 진산인 봉황산에서 발원하여 황간의 백화산(포성봉이라고도 함)을 휘돌아 흘러온 송천(松川)과 만나서 그 흐름을 금강(鎭江)의 물줄기로 향한다.

그 장교천의 물빛이 누렇다고 하여 예로부터 황간(黃澗)이라 하였으나 황계(黃溪)와 더불어 이미 신라시대부터 불려온 이름이다. 장교천이 송천과 만나기 전 저만치 언덕에 전서체(篆書體)의 글씨로 아주 잘 쓴 '회도석(回澗石)'이라는 꽃돌이 하나 서있는데 말 그대로 '백머리를 둘러라는 뜻이다.'

<영동군지(永同郡誌)>에 따르면 광고천에 배 모양의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배가 줄곧 하류로만 내려가려고 하니 황간의 기운을 밖으로 실어내는 꼴이다. 그리고 풍수적으로 볼 때 황간 땅이 이미 떠나가는 배의 형국이라 회도석을 세워 그 백머리를 둘러려했다는 것이다.

백화산을 휘돌아 흐르는 송천 강변에 자리 잡은 반야사는 의상스님의 제자 상원(相源스님이 창건하였다. 천변도랑(川邊道場)으로 남한강의 신록사(神勒寺) 소양강의 정평사(淸平寺)가 강 언덕에 있으나 강으로부터 제법 멀

어져 있고, 포항의 오사(五魚寺)는 비록 물가에 바투 있지만 호반(湖畔)에 기대어 있는데 비해 반야사는 절 마당이 금강의 줄기 송천과 맞닿아 있다.

추풍령은 면소재지가 있는 작은 산읍(山邑)이다. 본래는 금산군(金泉)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충북 영동군에 속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추풍령에 대해 "경상도와 충청도가 갈리는 곳에 있어 일본의 사신과 우리나라의 사신이 청주를 경유할 때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감으로 관(官)에서 접대하는 번거로움이 상주와 맞먹는 실로 왕래의 요충지"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이른바 영남대로라 부르는 문경새재 길에 견줄 만큼 추풍령 길의 통행이 많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길은 금산군(金泉) 동현의 중수기(重修記)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부풀림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추풍령 길은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경새재에 비하면 무척 한가로운 길이었다. 백두대간의 남쪽 즉 영남(嶺南)의 사람들이 서울 가는 길은 반드시 백두대간을 넘어야만 갈 수 있다. 그 고개 길은 풍기에서 단양으로 넘어가는 죽령(竹嶺), 김천에서 황간으로 넘어가는 추풍령(秋風嶺), 문경에서 충주로 넘어가는 새재, 즉 조령(鳥嶺)의 세 갈래로 크게 나뉜다. 고개가 셋이듯이 서울 가는 길도 세 갈래였다. 부산에서 대구, 상주, 조령(鳥嶺)을 넘어 충주, 용인을 지나 영남대로(嶺南大路)와 영천, 안동을 지나 죽령(竹嶺)을 넘어 서울로 가는 영남좌로(嶺南左路)와 김천을 지나 추풍령(秋風

嶺)을 넘어 서울로 가는 영남우로(嶺南右路)가 있었다.

죽령은 삼국시대 초기에 신라의 고구려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고구려에 사신과 공물을 보내는 관로가 계림령이었다. 그러나 고구려가 한강지역에서 백제와 다툰 때 고구려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당나라와 왕래하기 위해 개척한 고개가 죽령이다. 그리고 문경새재 길은 계림령과 새재와 이화령 세 길이 있는데 이를 조령삼로(鳥嶺三路)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고개는 문경 관음리에서 충주 미륵리로 넘어가는 하늘재인데 이고개의 옛 이름이 계림령이다.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고개의 역할을 다했으나 조선시대에 문경새재를 관음(官路)로 정하여 영남대로의 중추적인 고개로 자리 잡음으로써 하늘재는 관군을 피해 다니는 서민들의 고개가 되었다.

이화령은 문경에서 연풍으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화현(伊火峴)이라 기록된 것을 일본이 마음대로 이화령(梨花嶺)으로 고쳐 불렀다.

추풍령 남쪽 고을인 김천에서 백두대간을 넘는 데는 널리 잘 알려진 추풍령과 황악산 사이의 작은 고개인 패방령(俳榜嶺)의 물이 있다. 추풍령은 관로여서 백성들이 꺼리는 고개라서 약간 돌아가지만 패방령을 즐겨 다녔고 또한 한양에 과거보러가는 선비들이야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떨어지지 않고 이름 석 자가 방(傍)에 걸리기 위해서라도 추풍령을 버리고 패방령을 택했을 것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원대 이사장)

##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 수염 기르기

아버지 생일이라며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나는 올해도 함께 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장인 장모가 수염을 기른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염 좀 깎고 오라는 말을 장모로부터 직접 들었으니 나는 깎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 쪽을 택했다. 수염이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면 기분이 나쁠 것이므로 가지 않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장인 장모는 수염 기른 내 모습을 보지 않으니 좋고, 나는 누군가의 요구로 수염을 깎아야 하는 굴욕감을 맛보지 않으니 좋은 것이 아닌가? 굳이 처갓집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문제는 아내였다. 장인과 장모의 생일을 맞아 일 년에 두 번 가는 처갓집에 한 번도 동행하지 않는 나를 여간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을 입에 올리면 곧바로 싸움이 일어난다.

장인 장모를 비롯한 처갓집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귀한 딸을 데리고 산 속으로 들어간 것도 못마땅한데 농사까지 짓는다 하니 나를 반길 까닭이 있었을까? 이삿집을 날라주고 돌아가던 처남은 차안에서 울었다고도 한다. 증풍으로 쓰러져, 누웠 다 앉았다 하며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장모로서는 딸을 힘들게 만든 내가 영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수염까지 기르고 다니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는가? 남을 의식 하며 살아가는 농촌마을에서, 수염을 기른 사위 그것도 가진 것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

수염 하나도 맘대로

기르기 힘든 세상에서

나는 수염을 기르며

살아간다

수염을 깎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야

정확한 말일까?

지려면 싸가지 없는 놈이 되기 일쑤다.

이곳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어이, 코털!" 내게 자주 찾아오던 사람이 나를 부르던 명칭이다. 새 차를 산다는 얘길 듣고 그의 고물트럭을 사서 끌고 다니던 3년 동안 사람들은 내 차를 보고 "이거 얼 씨 차야냐? 아, 아직 잘 굴러다니네!"라고 얘기하며 눈 아래로 내 모양새를 내려다보곤 했다. '가진 것도 없는 놈이 무슨 수염을 기르고 난리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눈빛이었다. '발님이었던가?' 마를 희식자리에서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어이, 왜 버트장머리 없게 수염을 기르고 지랄이야. 내가 수염 깎게 만든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내일 당장 깎아, 앞았어!" 직직탄을 날린 사람이 있었다. 도끼까지 휘두르며 '날 건드리면 목숨이 풀길 지도 모르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을 단단히 못박아두는 걸로 그날의 싸움을 끝냈다. 그렇게 지친 수염이었다.

"왜 수염을 기르는데?"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수염 기르면 미누라가 좋아해?" "수염 좀 깎으면 안 되냐?" 은근슬쩍 비웃는 웃음과 기분 나빠하는 얼굴 표정까지, 각양각색인 사람들을 보면서 '수염 하나 기르기 참 힘들구나'라는 말이 튀어나오곤 했다. '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삶인데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수염을 굳이 매일 깎아야만 하는가?' 라는 지극히 단순한 물음을 떨치지 못해, 자라는 수염을 깎지 않고 그냥 놔두었던 것뿐이었다.

수염 하나도 맘대로 기르기 힘든 세상에서 나는 수염을 기르며 살아간다. 수염을 깎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야 정확한 말일까?

■ 유승도 (시인)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한국 불교 문헌의 대총서를 읽기 쉬운 우리말로 만난다.

신라 1 인왕경소 원축 | 백진순 옮김 | 신국판 | 800쪽 | 35000원

호국의 비법이 실해진 『인왕경』의 주석서이다. 원축 스님의 말년 작품으로서, 내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 결국 외적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고려 1 일승법계도원통기 균여 | 최연식 옮김 | 신국판 | 214쪽 | 12000원

한국 화엄학의 시조인 의상 스님의 『법계도』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해설서이며, 균여의 저술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문헌으로서 균여 화엄사상의 초기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준다.

고려 2 원감국사집 충지 | 이상현 옮김 | 신국판 | 480쪽 | 25000원

고려 말엽에 국사로 활약한 충지 스님의 시문집으로서, 선취적禪趣의인 시와 외세의 영향으로 관공에 빠진 사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식인의 고민을 보여 주는 시가 절창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1 작법귀감 백과 금선 | 김두재 옮김 | 신국판 | 336쪽 | 18000원

『작법귀감』이라는 제목은 불교의 제반 의식에 통용되는 의식문의 모범이요, 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책은 기존 의식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있어 불교의례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 2 정도보서 백암 성총 | 김중진 옮김 | 4×6판 | 224쪽 | 12000원

극락의 찬란한 모습과 그곳에 이르는 방법 등 정토신앙에 대한 교학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한편으로, 엄불수행을 통해 극락에 이르는 이야기를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다.

조선 3 백암정도찬 백암 성총 | 김중진 옮김 | 4×6판 | 154쪽 | 9000원

극락과 엄불을 노래한 정도의 노래이자 백암 성총 자신의 인생 여정과 추도의 과정에서 느꼈던 서정과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담고 있는, 종교성과 문학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조선 4 일본표해록 풍계 현정 | 김상현 옮김 | 4×6판 | 180쪽 | 10000원

천불을 조성해 경주에서 배에 싣고 해남 대문사로 가던 중 일본에 표류하여 겪은 일이 흥미 있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의 풍속과 일본인의 조선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주요 언론이 주목한 10년간의 대장정, 그 첫 결실

한국불교전서의 한글본 완역은 조선왕조실록 완역과 같은 문화적 충격을 줄 것 - 문화일보 <일본표해록>은 대마도가 조선 땅이라는 증언을 담은 흔적 없는 책이다 - 경향신문 이 책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면 200자 원고지 분량만 24만 장에 달한다. 이중 80%가 한글 초역이다 - 중앙일보 향후 10년간 한글 번역본이 200~300권에 이르게 될 대장정 - 조선일보 10년 뒤 총서 완결되면 불교인식 바뀔 것 - 서울신문 우리말 옷 입은 1700년 한국불교 진면목 - 연합뉴스

동국대학교 출판부